

후배공무원 직장 적응, 선배가 돕는다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디딤돌' 운영

전북교육청은 신규임용 공무원과 초임 행정실장의 직무 능력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지방공무원 디딤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딤돌'은 '디디'와 '돌'을 조합한 말로,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을 디딤돌 삼아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직무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학습제이다.

도교육청은 7월까지 '도우리'와 '디딤' 신청을 받아 14일 결연식을 가진 뒤,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도우리는 신규임용자 과정은 7급 이상, 초임 행정실장 과정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희망자 또는 추천자를 신청 받는다.

디딤이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신규임용자 과정)과 처음 행정실장 직을 맡은 공무원(초임 행정실장 과정)이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도우리 1명에 디딤이 6명 이내를 한 조로 편성, 각 조별 계 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한 뒤 온라인 만남, 대면 만남, 정기 또는 수시모임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디딤도움은 2016년부터 도교육청 주관으로 공식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신규임용자 과정 493명, 초임 행정실장 과정 179명 등 총 672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 지난해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한 138명 중 94.2%(130명)가 만족(46명, 33.3%) 또는 매우 만족(84명, 60.9%)한다고 답했다.

또 디딤도움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중 98.6%(136명), 초임 행정실장 중 95.0%(131명)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신규공무원들이 낯선 직장 문화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공무원들이 도와주기 위해 시작한 제도가 디딤도움 제도이며, 이를 통해 도우리에게는 업무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역량 강화와 조직 적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 통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안득수 교수 조경 발전 공로 '국토부장관상'



전북대 학교 안득수 교수(농생대 조경학과·사진)가 최근 열린 제16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환경

의 품격 향상과 국내 조경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상을 받았다.

(재)한국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하는 조 경의 날 기념식은 5개 협회가 주관하고 관련단체도 12개에 이르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최대 행사다.

안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 분야 1대 전문위원(program manager)으로 활동하며 관련분야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고, 많은 학술연구와 연구 용역을 통해 조경 분야의 연구와 실무를 창조적으로 연계시킨 것 등 성과를 인정 받았다.

안 교수는 그간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전통조경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특히 전북대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장직을 수행하면서 논문집 'Journal of East Asian Landscape Studies'를 연 4회 영문으로 발행하는 데 공헌했다. 이 논문집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경관분야 논문집 중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돼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농진청, 조달청, 새만금개발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자문위원과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위원, 행정심판위원, 문화재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 하천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 도내 많은 지자체의 조경 및 경관분야에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안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는 제2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사)한국조경학회 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 발표상, (사)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과 김제김민중영구단지지의 전라북도 유치 공로로 도지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기자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학년도 1학기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2019학년도 1학기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은 전주를 비롯한 8개 시군 17개 학교에서 운영되며, 운영과목은 42개이다.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거점학교에서 지정한 기

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임하면 된다. 서류 제출기한 및 면접 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거점학교 홈페이지, 소속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전주지역 5교, 군산지역 1교, 익산지역 3교, 정읍지역 4교, 남원지역 1교, 장수지역 1교, 순창지역 1교, 고창지역 1교이며 거점학교별로 운영하는 과목은 당해

학교에서 3개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지 못한 과목이다.

전북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따른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면접을 통해 인성, 흥미, 참여동기 등

심적과는 무관한 학생의 진로와 흥미만을 살펴본 후 참여학생을 선발한다. 또한 전체 수업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중심 활동형·모둠행·토론형·발표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캠퍼스 곳곳 신입생 환영 행사 열려

전주대학교는 5일부터 7일까지 2019년학년도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선배들이 직접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매일 진행되는 선착순 간식 이벤트와 경품추첨, 푸드트럭 존,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참여형 미션을 통해 신입생이 부담 없이 재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달성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여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였다. 또, 매 시간대별 버스킹 팀이 참여하여 행사장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한 전주대 김성호 학생(25, 건축학과 4학년)은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신입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환영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신입생이 대학생활에 빨리 적응해서 캠퍼스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따스한 봄 비와 봄 장미를 모

손에 손잡고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앞장'

도교육청, 추진지원단 위촉식 가져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힘모아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6일 오전 5층 정책회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마을교육생태계란 마을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



추진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도교육청 2명, 도청 2명, 도의회 2명, 단체 2명, 중간지원조직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지원단은 도교육청 2명, 도청 2명, 중간지원조직 4명 등 8명으로 꾸려졌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마을교육생태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교육생태계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

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 2019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마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이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와 지역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자사고 평가계획 형평성 어긋나고 불합리"

상산고 총동창회, 성명서 발표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평가계획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지난 2월19일 김승환 교육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 왔다.

이에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평가 기준점 80점을 다른 시도 교육청과 동등하게 조정하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 지표를 전면 삭제하라' 등 2가지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를 60점

에서 80점으로 대폭 상향한 것은 법령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또한 사회통합전형 평가지표 4개(배점 14점)항목도 1기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 2항에 따라 사회배려대상자 의무선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재지정 여부는 원칙대로 진행하며, 평가 거부시 행정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상산고는 지난 1981년 개교 이래 오로지 지역 학생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3년 자율형 사립고 전환도 당시 김대중 정부가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한 정책을 따른 것이다. 자사고 전환 이후 상산고엔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학업을 충실히 마친 뒤 사회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전국 화합의 씨앗이 되어 왔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